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음 5월 28일) 제183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중부권 정책협의회 개최 2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전북지사를 비롯한 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박관용 경북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춘희 세종시장 등이 참석해 '중부권 정책협의회'가 열렸다.

"기금본부 서울사무소 존치 백지화해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혁신도시 조성 목적에 정면 배치… 좌시하지 않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꼼수 존치 논란과 관련해서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꼼수 존치 논란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최근 기금운용본부가 강남 사옥에 회의공간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서울사무소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내용이 언론에 기사화 된 직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은 긴급 업무보고를 요구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기금운용본부 책임자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해명은 기금운용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급박한 회의가 잡힐 경우를 대비해 만든 공간이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우려와 의심의 시선이 매우 많다"며 "현실적인 이유, 업무 효율화 등 핑계를 대며 결국 실질적인 서울사무소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꼼수 논란을 자초한 기금운용본부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사무소 운영은 현행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철학, 금융타운 조성에 대한 대선 공약과 도민들의 기대 등 법적·정치적·도의적으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다"며 "서울사무소 꼼수 존치는 LH 전북이전 실패로 큰 상처를 입은 200만 전북도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는 행동"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여타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그야말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고 지난 2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으로 일단락 되었던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불쾌한 상황이다"며 "향후 장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상임위 활동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벼 갉아먹는 멸강나방 발생

농촌진흥청은 경기, 충남, 전북, 강원 등 전국에서 멸강나방 애벌레가 확인됨에 따라 농작물 재배지를 미리 살펴보고 발견 즉시 방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

멸강나방이 우리나라에 날아와 채집된 최대발생일(5월 28일--30일)을 기준으로 6월 중순부터 7월 상순경에 멸강나방 피해가 예상되므로 각 농가에서는 논둑이나 밭둑, 목초지 등을 자주 관찰해 멸강나방 애벌레 발생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멸강나방 애벌레는 벼, 옥수수, 조, 수수 등 벼과식물과 콩과식물의 잎을 갉아먹다가 점차 줄기, 이삭까지 먹어치우기 때문에 발생한지 수일 안에 작물이 앙상해진다. /안재용 기자

문 대통령 "일자리 정책 로드맵 8월 말까지 마련"

일자리위원회 1차 회의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8월말까지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일자리를 통한 국민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좋은 일자리에 두고 기존 정부정책을 거기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서 재정·세제·금융·조달·인허가 등 기존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동원하는 한편, 고용영향평가와 정부 및 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또 비정규직 차별 해소, 또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 질 향상도 필요하다"며 "향후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각계 대표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창의적이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개발해 나가고 또 마련된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는 그런 역할까지 맡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은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과 양극화 속에서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했다"며 "하반기부터 바로 우리 고용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1차 회의를 기점으로 새 정부 일자리 정책의 청사진을 만들고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일자리 문제는 산업정책·노동정책·재정금융정책이 아우러져야 되고, 민간과 공공부문, 산업계·노동계, 정부가 등 모든 경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새로 임명된 당연직 위원 14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장하성 정책실장·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배석했다. /뉴시스

이·통장 활동보상금 인상 행자부 훈령 개정

전북 시장군수협의회서 채택 전북도 등과 공동 대응키로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순창군수)는 21일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내 종자산업진흥센터에서 민선 6기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시·군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이·통장의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업무수행 보장을 위해 '이·통장 활동보상금 인상을 위한 행정자치부 훈령 개정' 등 3건의 안건을 채택, 전라북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시장·군수들은 민간육종연구단지내 종자산업진흥센터를 둘러보며 대한민국의 식량안보를 책임질 종자산업의 전망과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며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협업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협의회가 각 시·군의 공통 현안을 고민하고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협업과 소통의 창구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라북도의 공동발전을 위해 시·군간 상호교류와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종자산업진흥센터는 육종기술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글로벌 종자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종자산업 선진화 전문기관으로 종자수출 2억불달성과 세계 종자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미래를 품은 씨앗'이라는 주제로 제1회 국제종자산업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병원성 AI 발생 따른 민생안정대책 추진할 터"

송 지사, 소규모 농가·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살처분 보상금·가금거래상 지원 등 당부

송하진 지사는 이번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해 영세 소규모 농가 및 산닭판매점, 음식점 등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생안정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 3일 전북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인한 선제적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규모 농가 및 자가소비용 가금 사육농가, 살처분된 농가, 이동제한 농가에 대해 신속한 보상금 지급과 살아있는 닭의 유통금지에 따른 전통시장 산닭판매점, 가든형 식당, 가축거래상인 등 소 상공인에 대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지시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AI 발생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홍보도 당부했다.

살처분 관련 직접보상금(국비) 등을 확보, 추정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 지급을 실시, 소규모 농가 및 자가소비용 수매,도태에 대해서는 시군비를 활용 전액 지급한다.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부화장, 도계(압)장, 유기비료공장, 계란집하장, 닭오리 가공공장, 사료공장,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연리 1.8%, 2년거치 3년 상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 입식 지연 등으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 소득안정자금을 70%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아울러 추가 신청농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재입식시 입식비용에 대해 융자금을 지원 신속히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송 지사는 "현재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는 닭오리 고기는 엄격한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유통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는 닭 오리고기 소비에 협조"를 전했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오염 가금육은 심부온도가 75℃ 5분, 80℃ 1분간 열처리하며 사멸되며 바이러스는 지질성분으로 구성된 외피막을 가지고 있어 비누액과 같은 세제 성분에도 사멸됨으로 소비자께서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한 후 안심하고 가금육을 소비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